

간단한 답 글이 아니고 좀 긴 답글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씁니다.

“간단한 서면 인터뷰 문제 하나” 가지고 뭐가 이리 복잡하고 까다로워야 하느냐고 짜증을 낼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활동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서로 한번 주의를 환기 시킬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장황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글을 올립니다. 미술인회의의 회원들, 특히 운영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한분 한분 다 범상한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의 해당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경력과 그 능력을 인정 받고있는 분들입니다. 한분 한분이 미술인 회의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주변에서 보아 주기도 할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인터뷰 요청한 아트 프라이스 측에서도 김준기님을 그렇게 보고있기에 애초에 인터뷰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이웃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내려와 다시 게시판을 보니 김복기님이 아주 주밀한 답글을 달아 놓아서 제가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냥 여기서 글을 끝내기가 섭섭해서 그냥 좀 더 써봅니다. 김복기님의 글을 반복하는게 될지라도...)

이런 분들이 모인 미술인 회의는 분명 드림팀이지요. 그런데 조율에 실패하게 되면 자칫 업무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 이미 김복기님의 글에 다 나와있는 애깁니다만.) 혹 다른 어떤 모임에서는 조직의 경직성이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가로막는게 우려된다면 저희 미술인 회의는 오히려 구성원들의 발랄한 자발성이 조직에 필요한 “조직성”에 균열을 내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까 우려됩니다.(저의 노파심 일까요?)

계속된 댓글을 통해 애초의 의구심이 풀렸지만 정황 설명 없이 ‘다음과 같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더러 써 달라고 하는걸...일단은 발뺌을 해두었습니다’ 라고 쓴 서두의 글에서부터 우리는 ‘조직성에 균열’내는 소리에 노파심이 일어 김복기 님의 글에 화답하는그런 댓글을 달았던 겁니다.

댓글의 군데 군데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울림이 계속 울리기에 조금만 더 써 볼게요.

‘모임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 대표적 인물이나 연장자에게 의례적 인터뷰를 하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사무처장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하여야 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일입니다.’—제 생각엔 웃기는 일이 아닙니다. ‘굳이’ 가 아니라 ‘당연히’ 사무처장과 상의 하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의례적인 것이든 아니든....

‘사무처장에게 토스하느냐 운영위원회에 토스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무 처장이 선임되고 1차 운영위원회가 열린 마당에는 사무처장에게의 토스를 선택 하는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쓴걸 다시 읽어보니 상당히 조직성을 강조하는 뻣뻣한 글이 되고 말았네요. 지가 뭐 언젠적부터 그렇게 조직생활을 했다고. 네, 그러나 오늘 저녁은 좀 뒷목이 좀 뻣뻣하기도 하군요. 제가 김준기씨!라는 느낌표에 실어보낸 감정에 맘 상하셨다면, 김준기님~~ 맘 푸시고 서로 열심히 일합시다.